

# 서울우유 유치경쟁 치열

## 포천시, 생산지 인건성 물류비 절감 장점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우유 공장 유치에 놓고 경기도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시설노후화와 공동주택 설립 및 택지개발 등의 민원 등이 제기됐던 서울우유 양주공장은 수도권 지역 대기업 이전 제한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달 공여지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장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장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의 양주공장(370명, 6만여㎡)에 경기도 용인공장(280명, 4만여㎡)을 통한 운영에 더해 투자규모 2000억원, 연매출 5000억원, 총 8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 포천·양주·동두천·연천 등의 지자체는 각자의 유리한 점을 내세우며 공장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우유 측이 통합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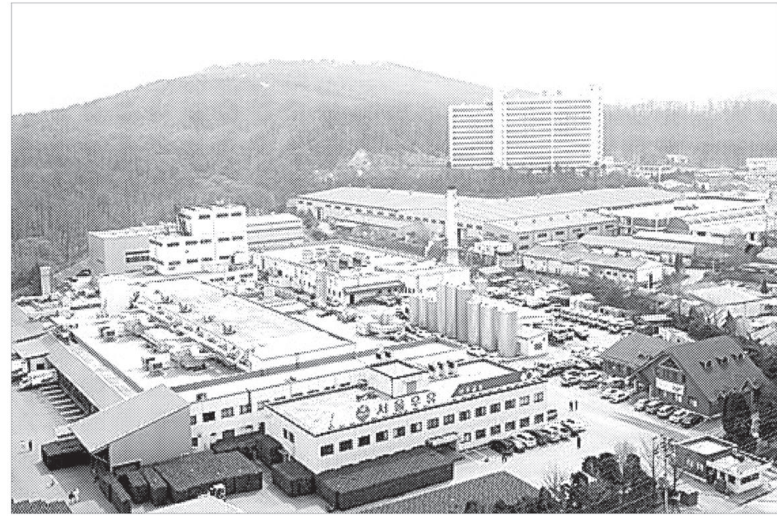
을 놓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물류비용, 초기투자 비용, 도로 접근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도로 접근성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원활하게 구성돼 있다고 판단, 물류비용과 초기투자 비용 등을 판단,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최적의 부지를 위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물류비용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과 비교해 가까운 거리로 꼽히는 포천시와 양주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들 지자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지가가 걸림돌로 지적 받는다.

반면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 물류 비용에 있어서는 이들 지자체보다 불리한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형성 등 초기투자 비용 등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유제품 특성상 생산지 인접성에 따른 물류비 절감, 당시 군보다 많은 사유농가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서울우유 양주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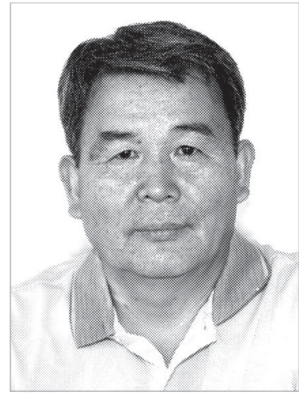
340여명, 매출액은 2345억원에 달한다.

현제 서울우유는 현재 양주, 안산, 용인, 거창에 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공장 같은 경우 수직면적 6만3000㎡, 건축면적은 1만9628㎡이며 고용인원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72

한탄강 매기매운탕

## 살아있는 메기를 즉석에서 요리



대표 노 훈

최근하고 시원하게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포천시 선단동 555-2번지 '포천 한탄강 매기매운탕 전문점' 이 문을 열었다.

대전대학교 입구에서 송우리 방향으로 장승거리 삼거리로 지나면 우측에 매기 매운탕 집을 연상케 하는 '웃고 있는 매기캐릭터' 간판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전문점 옆에 있는 전용 주차장 간판은 주차장격부터 하게 되는 자가용 주차장들의 걱정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주차할 한 뒤 문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서면 시원하게 냉방된 천바탕과 쾌적한 실내 그리고 2미터 기어의 수족관에서 우스꽝스럽게 쿡수염을

시를 하고 노 대표는 친구가 잡은 민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기 시작한 세월이 40년 세월이라고 말한다.

매운탕 끓이는데 일가견이 있던 노 대표는 매기매운탕 전문으로 유명한 김포에 소재한 한탄강 매기매운탕 식당을 벤치마킹하고 포천에 한탄강 매기매운탕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2층에서부터 서식하는 매기의 특성상 자연산 사 형태에서 양식하는 한편, 양구 일대의 양어장에서 매일 공급한다고 한다. 주재료가 신선함이 살아있고 40년 넘게 매운탕만을 끓여왔던 노 대표의 노하우가 접목되어 '포천 한탄강 매기매운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특히 해금냉채와 비린내 제거 노하우는 자부한다고 한다.

살 두툼한 매기에 새우, 무, 팽이버섯, 깻잎 그리고 송달송달 썰어 넣은 대과와 고추가 육수와 양념장을 더해 푹 끓여 나온 푸짐한 뚝배기를 보니 어느새 군침이 꿀꺽 넘어간다. 호호 불어주며 후후룩 맛본 국물, 목과 위장을 따라 뜨끈뜨끈하게 흘러내리는 그 맛과 별나게 짭짤한 수제비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이미에서 등까지 송골송골 땀이 배게 서너 그릇은 비우고서야 알리게 되는 게 바로 노 대표의 매기매운탕이다. 몸 속부터 기온 좋게 할아들다가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온몸에 힘이 붙는다. 인심 좋은 노 대표의 식단은 4인 가족이 먹어

## 소꿉친구와 낚시하던 세월 40년이 매기매운탕 전문점 대표로 만들어

달은 매기들의 점잖은 몸놀림이 눈에 들어온다. 매기는 민물고기로서 수분, 철분, 칼슘, 지방, 인, 비타민과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특히 철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의 하나다. 모양새로 치자면 불품 없고 홍물스럼기가 지 한 매기, 거무튀튀한 몸, 불품 없이 매달린 긴 수염과 특 튀어나온 눈, 게다가 명색이 생선인데 비늘도 없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했던 양념대들은 매기를 멀리했다는 속설도 있다.

오늘날 들쭉거리던 서러울 건강식품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게 된 매기를 주제로 선택한 노 훈 대표의 개업 동기는 남다르다. 소꿉친구 시절 친구와 낚시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친구는 낚

도 남을 정도에다 수제비, 라면사리는 무제한 공짜라니 시골인심 한뼉 정겹다.

지난 6월에 개업을 한 뒤 한뼉 찾아와 맛본 손님은 그 맛과 인심에 매료되어 '포천 한탄강 매기매운탕' 마니아 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담백하고 구수하고 매콤한 매기매운탕으로 속 한 번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포천 한탄강 매기매운탕'의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단체손님은 예약이 필수(문의.031-541-5535). 민물고기의 대표주자 매기로 기력을 보강하자. 조성구 기자 cho2182@paran.com



최근하고 시원하게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포천시 선단동 555-2번지 '포천 한탄강 매기매운탕 전문점'

## 에코디자인시티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포천시, 영북면 7.48km<sup>2</sup>에 이어 이동면 일대 9.9km<sup>2</sup>

경기도 포천시는 2014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팔포장 등 대규모 휴양지가 조성되는 이동면, 이동면 일대 9.9km<sup>2</sup>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은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공여구

역 및 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역시 에코휴양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영북

면 일대 7.48km<sup>2</sup>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 에코휴양도시 사업을 위해 모두 16.38km<sup>2</sup>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이 지역의 주요 제한사항은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 모두 금지된다.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은 영북면과 이동면, 이동면 일대 1345만8000㎡에 3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108홀 규모의 골프장과 온천, 스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롯데관광개발(주)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10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FP교실 ①

### 잘못 알고 있는 보험상식

보험에 관한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잘못된 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타넷(홍소령)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홍소령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보편적으로 기존의 FP(제무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소개받을 경우보다는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불필요한 가입이 많아 보험료의 낭비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자문 등 보험

계약자에 대한 관리의 상당히 취약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험사가 망하면 내 보험은?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보험사 상품 가입을 앞두고 내가 선택한 보험사가 망하면 어찌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선 각성이라 할 수 있다. 보험사중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가 재정악화로 인해 파산할 경우라도 할지라도 기존 고객에 대한 보장을 100%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이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

▶만기 환급금이 많았으면 좋겠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면 만기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

품을 고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현재 보장성을 제외한 저축보험료의 경우 20~30년 후에 돌려 받는다고 가정할 때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볼 경우 오히려 손해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무진단이나 빨리 보험에 가입 하자.

-대부분의 홍소령 상품의 경우 무진단 상품들을 자주 출시하고 있다. 무진단 보험이라면 심증할 구 병력이 있거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이 힘든 이른바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고객일 공산이 크다.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 위험 고객에게 똑같은 보장을 해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무진단 보험이기 때문

에 보험료가 비쌀뿐더러 질병에 대한 보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확률이 높다. 건강하다면, 차라리 심사를 받고 제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경제력과 위험 등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맞춤형설계를 통해 현명하게 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박수영 FP 제일화재 강북지점 북부영양소 FP 011-701-0350

##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나일해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무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광업 ②제조업(석방안간, 파지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를 가능 ③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④부동산 매매업 ⑤번호사, 변리

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상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제청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특정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국제청정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특정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형장소와 국제청정이 정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형장소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제청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국제청정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불린장 등 ②주요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③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업 등 ④희귀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정기, 가전제품 등 ⑤기타 신종 호환업종 :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업, 음식물처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광명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단,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의한다.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형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형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제청정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과세유형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유형장소: 특수용, 스탠드바, 극장식당, 카페, 노래방, 디스코클럽, 고교클럽, 관공음식점, 요정 \*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제청 홈페이지(www.mts.go.kr) '국제청뉴스-고시·공고-국제청고시' 코너 참조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국제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자료제공 : 의정부부서재신세과 (031-870-4484~4487/4502~4507)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일반작업용 리프트 내부 정리작업 중 협착

▶재해발생 개요 2006년2월0일 오전 11:00경 목재장식용 제2차 작업장에서 미성생 산지 근로자인 피재자가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으로 반쯤된 제품을 운반하던 중 2층 승강로 프레임과 운반구 상부 프레임 사이에 목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협착 위험구역 내 접근금지 미조치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반구 승강에 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협착 위험이 있는 승강로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 넣고 불량 적재 제품 수평작업을 실시하는 등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부적절 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께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Key 타입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로 방호를 등의 방호장치 설치

건축물의 비다면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수를 설치하고, 화물 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 나. 작업방법 개선 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께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실시

다. 자체검사 및 운전시작 전 확인철저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상태 점검 및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 실시

라.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등 부착

각 층에 리프트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및 근로자 탑승금지 등 작업안전수칙 부착, 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작업에 대한 위험성, 작업안전수칙 준수, 사고사례등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후)에 대한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개정내용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시 60세 도달 이후에는 65세 도달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함

▶Q&A 고객: 저는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61세이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정지되나요?

상담 :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65세 이전에 취업이 되시면 조기노령연금이 정지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서 60세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더라도 재직자 노령연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매월 50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앞으로는 지급 받으시던 연금의 60%(61세 재직자노령연금 지급율)에 해당하는 연금액인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서 031-544-8700